

2023. 12. 18.(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12월 17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담당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경영관리부장

안병희

02-3146-1601

홍보민원과장

홍승기

02-3146-1210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4쪽

누리집

arisu.seoul.go.kr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새 이름 '아리수본부'... 믿고 먹는 물로 신뢰도 높인다

- '세계 최고 수돗물' 향한 미래 비전 담아 '서울아리수본부'로 국·영문 명칭 변경 추진
- 공급자 관점 기능적 명칭→시민 친화적으로 변경... '아리수 2.0' 성공추진 동력 확보
- 인지도 높은 서울 수돗물브랜드 '아리수' 활용, 깨끗하고 안전한 물 제공 핵심·본질 반영
- 새로운 C.I도 개발... 시 “믿고 마시는 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인식 개선 위해 노력”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가 1989년 출범 이후 34년 만에 '서울아리수본부'로 기관 이름을 바꾸고 C.I도 새롭게 개발해 시민을 찾아간다.

※ CI(Corporate Identity) : 기관이 지향하는 비전, 이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조직의 여러 가지 이미지를 통일화시키는 작업으로 상수도본부는 CI가 없었음.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는 한자 기반의 12자로 이루어진 긴 기관 이름으로 인해 그동안 쉽게 부르고 소통하기가 어려웠다. 또 “관을 통해 물을 보내는 설비”를 뜻하는 ‘상수도’가 시민에게 “매립 노후관”을 연상시켜 수돗물이 먹는 물로 자리매김 하는데 저해요소로 작용한다고 보고 기관 명칭 변경을 준비해 왔다.

- 본부는 단순 수도관 관리가 아닌 세계 최고의 맛있는 물을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 인공지능(AI)으로 초고도 정수처리 추진’, ‘350개 항목의 철저한 수질관리’, 한 가지 민원을 신청해도 주요 5대 불편 민원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주는 ‘아리수 원콜서비스’ 등 다양한 활동을 담아내고 미래 비전을 포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친근하고 인지도가 높은 서울의 수돗물 브랜드 ‘아리수’를 적극 활용해 시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기관명과 C.I 개발을 추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본부는 기존에 공급자 관점의 기능적 명칭에서 시민 친화적인 명칭으로 변경해 향후 100년을 대비하는 미래 비전인 ‘아리수 2.0’의 성공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이다.
- 영문 이름도 기존에 ‘SEOUL WATERWORKS AUTHORITY’에서 ‘SEOUL WATER’로 변경한다. 해외 도시들도 호주 시드니는 ‘SYDNEY WATER’, 일본 도쿄는 ‘TOKYO WATER’ 등 도시 이름과 ‘WATER’를 결합해 직관적으로 정체성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지난 12월 15일 기관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이 서울시의 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아리수본부’로 새 출발을 하게 된다.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는 기관 명칭 및 C.I 개발에 앞서 지난 4월 서울브랜드총괄관으로부터 시의적절한 개발계획이라는 검토 의견을 받아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했다.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본부 홍보자문회의, 직원 인식조사 및 인터뷰, 최종적으로 서울시 온라인 패널 대상 신규 기관명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72.8%가 ‘서울아리수본부’를 선택했다.
- 한편, 본부는 ‘04년 ‘아리수’를 상표등록하고 고품질 브랜드 수돗물 시대를 열었다. 또한 ‘09년 UN 공공행정 대상, ‘15년부터 100% 고도정수처리수 제공, ‘16년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22000) 인증 등 혁신을 이끌어왔다. 지난 6월에는 향후 100년을 대비한 계획 ‘아리수 2.0’을 발표해 세계 최고 맛있는 물에 도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 서울시는 오는 ‘26년까지 서울시민이 아리수를 먹는 비율을 50%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26년까지 가정으로 찾아가는 무료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100만 건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노후주택에서도 수도관 걱정 없도록 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과 더불어 급수관 세척비, 수도꼭지 필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클린닥터 서비스’를 시범 추진하고 있다.
- 아리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찾아가는 아리수 트럭과 수돗물 이야기 강사 아리수스토리텔러 사업을 통해 총 2만5천 명에게 맛있는 아리수를 홍보했으며, ‘맛있는 아리수 캠페인’을 통해 온라인에서도 2만여 명의 시민이 아리수를 먹는 모습을 사진과 댓글 등으로 인증했다.
- 유연식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서울아리수본부’로 기관명 변경 및 C.I 개발은 ‘세계 최고의 맛있는 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시민과의 소통 극대화, 해외 진출·협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다만 새롭게 바뀐 C.I 현장 적용은 최소 비용으로 시민 불편이 없게끔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임1

## 서울아리수본부 CI

- 상수도(上水道): 먹는 물이나 공업, 방화 따위에 쓰는 물을 관을 통하여 보내 주는 설비
- 서울아리수본부 CI

서울아리수본부   
Seoul Water

Seoul Water   
서울아리수본부

